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은 심각한 계급투쟁과정

리 정 수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장엄한 진군길을 다그쳐나가고있다.

우리가 건설하는 강성국가는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나라, 그 어떤 원썩들도 감히 범접 못하고 인민의 리상과 꿈이 현실로 꽃피는 나라이다. 이러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그것을 가로막는 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과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부정적현상들을 쓸어버리는 심각한 계급투쟁과정을 동반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은 온갖 적대적이며 비사회주의적인 현상들을 없애기 위한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게 됩니다.》

지난 시기 맑스주의창시자들은 자본가계급이 계급으로서 청산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적응에 의한 물질경제적조건에 따라 사회가 발전한다는 리론을 내놓았다. 그들은 로동계급이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세우고 사회에 대한 로동계급의 정치적지배를 실현하게 되면 계급투쟁이 끝나는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계급투쟁에 대하여서는 크게 강조하지 않았다.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에도 계급투쟁은 계속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에도 세계적범위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침략과 경제적봉쇄,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이 계속되고 내부에 적대계급의 잔여분자들이 남아있으며 사회주의사회의 본성과 배치되는 부정적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은 바로 이러한 모든 적대적요소들을 반대하는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치렬한 계급투쟁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할 때만이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할수 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은 무엇보다먼저 치렬한 반제군사전선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심각한 계급투쟁과정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지구상에 사회주의가 출현한 첫날부터 사회주의를 말살하기 위하여 온갖 비렬한 책동을 다하여왔다. 제국주의자들은 정치군사적공격과 압력, 경제적제재와 봉쇄, 부르조아사상문화의 침투 등 각방으로 사회주의를 말살하기 위한 책동을 끊임없이 벌여왔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가 전진할수록 그것을 멈춰세우고 말살하기 위하여 더욱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이로부터 치렬한 반제계급투쟁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 사회주의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고 빛내이며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를 타승하는 과정을 통하여 건설된다.

오늘날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전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외교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첨예하게 벌어지고있다.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그 어느 분야에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따라서 제국주의와의 대결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의 전면대결전으로 되며 우리가 진행하는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의 투쟁은 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전략을 짓부시기 위한 반제계급투쟁으로 된다.

우리 혁명의 일심단결과 군사진지를 강화해나가는 과정은 혁명의 정치군사진지를 허물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정치군사적공세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으로 되며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최첨단돌파투쟁은 제국주의자들의 경제기술적봉쇄, 《목조르기》전략에 대처하여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하늘과 땅차이로 만들기 위한 계급투쟁으로 된다. 뿐만아니라 나라의 대외적권위를 높이기 위한 투쟁이나 사회주의문화를 창조하는 사업도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과 비렬한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치렬한 계급투쟁, 대적투쟁으로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려면 정치와 군사, 경제와 사상문화, 외교 등 모든 면에서 제국주의를 타승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정은 군대와 인민이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 불패의 군력과 자체의 국가경제력, 존엄높은 대외적권위와 사회주의의 우월성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압도하는 계급투쟁과정으로 된다.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제국주의자들과 초강경으로 맞서 싸워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건설된다.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은 힘의 대결이며 반제계급투쟁은 자주적근위병이 되느냐 아니면 식민지노예가 되느냐 하는 치렬한 결사전이다. 침략과 략탈을 생리로, 본성으로 하는 제국주의는 반혁명의 길에서 물러서려 하지 않는다. 력사는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나라의 인민들에게 독립을 스스로 선사하고 물러선적이 없으며 저들의 멸망이 가까와올수록 최후발악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령전구도가 달라지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승리》에 도취되어 더욱 기고만장해 날뛰고있으며 특히 반제자주, 사회주의의 한길로 변함없이 나아가는 우리 나라에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고있다.

군사적강권과 정치외교적공세, 경제적압박과 사상문화적침투를 보다 비렬하게,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여 세계를 제패하려는 제국주의의 본성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군사적만능에 의거하는 제국주의자들에게는 힘만이 통할수 있으며 오직 그를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사회주의강성국가도 건설할수 있고 인류의 평화와 안전도 지켜낼수 있다. 악을 쓰며 달려드는 제국주의자들과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한다.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에서 언제나 주동에 서서 적들을 피동과 수세에 몰아넣는 승리자의 자세로, 비록 오늘은 힘겨워도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것이라는 신심을 가지고 사소한 양보나 후퇴도 없이 공격, 공격 또 공격해나갈 때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할수 있다.

오늘의 현실은 사회주의강성국가가 전체 군대와 인민이 굳게 뭉쳐 제국주의자들을 초강경으로 짓부셔버리려는 결사의 각오에 의해 건설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은 다음으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배치되는 온갖 부정적현상들을 극복해나가는 심각한 계급투쟁과정이다.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온갖 부정적현상들을 철저히 극복해나가는 과정에 건설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온갖 부정적현상들은 사람들의 건전한 사상정신을 마비시키고 사회주의를 쪼먹는 위험한 독소이며 이러한 현상들과의 투쟁은 곧 사상분야에서 사회주의와 자

본주의와의 심각한 계급투쟁이다.

더우기 오늘 제국주의반동들이 근로자들속에서 나타나는 부정적현상들을 저들의 반 사회주의전략실현에 리용하여 사회주의사회의 내부를 허물고 인민들의 불만을 조성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방해하려고 악랄하게 날뛰고있는 조건에서 사람들의 생활과 관습에서 나타나는 부정적현상들을 있을수 있는것으로, 보잘것없는것으로 여기고 허용한다면 막대한 해독적후과가 빚어지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부정적현상들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와 인민대중의 리익, 집단의 리익에 배치되며 그것을 침해하고 쪼먹는다.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조장되는 미신행위와 불량행위, 상적행위와 탐오,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 비롯한 부정적 현상들은 사회주의제도의 기초를 파괴하고 쪼먹는 매우 유해로운 요소이다.

사회주의근로자들속에서 나타나는 부정적현상들은 안으로는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사상문화의 유물이며 밖으로는 제국주의사상문화에 오염된 결과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온갖 부정적현상들은 사회에 물질적부가 풍부해지고 사람들의 생활이 유족해진다고 하여 저절로 없어지는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부정적현상들을 없애는 투쟁은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과 사상 투쟁, 조직적통제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그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새로운 계급투쟁형식으로 된다.

결국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은 사회주의를 쪼먹고 위협에 빠뜨리는 부정적현상들과의 치렬한 계급투쟁과정이다.

온갖 부정적현상들을 반대하는 전면대결전을 벌려 그 싹부터 짓밟개버리며 온 사회에 사회주의적생활기풍을 확립하고 일심단결을 실현해나갈 때 인민대중의 자주적지위와 역할은 굳건히 담보된다.

력사적교훈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나타나는 부정적현상들에 대하여 제때에 각성을 높이고 맹아적단계에서부터 극복해나가지 않는다면 사회주의의 본태를 잃게 되고 계급진지가 무너진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부정적현상들이 제국주의의 반사회주의전략의 리용물로 되는데 대하여 누구하나 투쟁하지 않고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가 성행하여도 투쟁하지 않은 결과 당과 정부의 적지 않은 간부들이 인민대중과 동떨어진 특권계급으로 전락되었으며 결국 사회주의가 인민대중의 지지를 완전히 잃고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의 최후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일심단결,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있는 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이고 배짱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역풍이 몰아쳐도 끄떡없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을 받들며 인민의 꿈이고 리상인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